

N수생 2023 수시합격 핵심 포인트는

✔ 졸업자 지원자격 ✔ 성적 반영기간 ✔ 최저학력기준

서울 상위권 대 교과전형 모집 ↑
전년 비해 최저학력기준 완화세
“대학 합격선 상승 가능성 고려해야”

2022학년도 입시부터 서울 상위권 대학 학생부교과전형 모집 규모가 증가하면서 2023학년도 수시 지원에서도 졸업생 도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2023년도 해당 전형에는 수능 최저등급 조건이 완화돼 지난 수시에서 수능최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합격하지 못한 학생이라면 올해 학생부교과전형이 대입 합격 키가 될 수 있다.

다만, 서울 소재 일부 주요 대학은 교과전형 지원 자격을 고3 재학생으로 두거나, 학생부 성적 반영 시 3학년 2학기 포함 여부 등이 대학마다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

◆대학별로 졸업생 지원 가능 여부 달라 주의

교과전형에서 졸업생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원 자격이다. 졸

〈2023학년도 일부 대학 교과전형 계획 (1월 5일 기준)〉

/진학사

대학명	선발 인원	졸업에 따른 지원자격 제한	수능최저 유무	전형방법
건국대	341	X	X	학생부교과70, 서류평가30
경희대	555	졸업예정자만	O	학생부교과비교과(출결봉사)70 교과종합평가30
고려대	871	X	O	학생부교과80, 서류20
동국대	407	X	X	학생부교과70, 서류30
서강대	172	졸업예정자만	O	학생부교과90, 출결봉사10
서울시립대	196	X	O	학생부교과100
성균관대	370	졸업예정자만	O	학생부교과100
숙명여대	251	X	O	학생부교과100
연세대	523	졸업예정자만	X	1단계: 학생부교과100(5배수) 2단계: 학생부교과60, 면접40
이화여대	400	재수생까지	X	학생부교과80, 면접20
중앙대	505	재수생까지	O(서울)	학생부교과90, 출결10
한국외대	373	2018년 1월 이후 졸업(예정)자	O	학생부교과100
한양대	331	재수생까지	X	학생부교과100

업 연도 제한을 두지 않은 대학도 있지만, 고3 학생이나 재수생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도 다수다.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는 졸업 연도와 관계없이 교과전형에 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는 졸업예정자, 즉 고3 학생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화여대와 중앙대, 한양대는 재수생까지 지원할 수 있고, 홍익대는 삼수생까지, 한국외대는 2018년 1월 이후 졸업자이면 가능하다. 이 중 중앙대는 지난해는 재학생만 가능하도록 했으나 올해 재수생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홍익대 역시 작년에는 재수생까지였으나 올해 삼수생까지로 자격을 완화했다.

◆학생부 반영, 3학년 '2학기 vs 1학기' 반영기간도 차이

많은 대학에서 졸업생의 경우 3학년 2학기까지의 학생부를 반영해 평가하지만, 졸업생도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

서울대를 제외한 주요 14개 대학을 살펴보면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가 졸업예정자(고3), 졸업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한다.

서류평가 30%를 새로 도입해 진로선택과목을 정성평가로만 반영하기로 한 건국대, 교과종합평가를 30% 반영하기로 한 경희대, 지난해에는 반영하지 않았던 진로선택과목을 올해는 반영하기

로 한 서울시립대 등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변화...서울 주요 대학 대부분 완화

2023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일부 대학들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변화를 들 수 있다. 고려대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했고, 성균관대는 지난해와 달리 계열과 모집단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거나 신설한 곳도 있다.

건국대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했고, 중앙대는 안성캠퍼스 모집단위에 대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했다. 반면, 한국외대는 서울캠퍼스에만 적용하던 수능 최저 조건을 글로벌캠퍼스에도 적용했다.

우원철 소장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완화 또는 폐지된 경우 부담은 줄겠지만 그만큼 합격선이 올라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 GRDP 435.9兆... 전국 22.6% 차지

〈지역내총생산〉

서울시 2019 지역내총생산 보고서
시민 1인당 GRDP 4512만원 기록
강남구 GRDP규모 1위... 71.8兆

2019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치로 평가한 지역내총생산(GRDP)은 435조 9270억원으로 전국의 22.6%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GRDP 규모가 가장 큰 자치구는 강남구로, 강북구의 약 22배에 달했다.

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서울시 지역내총생산(GRDP)'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서울의 경제

성장률은 2.6%로 전년(3.6%)보다 1%포인트 낮았다.

서울의 경제활동별 GRDP 규모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92.0%로 직전년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은 4.1%로 전년에 이어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민 1인당 GRDP(추계인구 966만2041명 기준)은 직전년도보다 145만원 늘어난 4512만원으로, 전국(3727만원)과 비교해 785만원 많았다.

구별 GRDP 규모는 강남구가 71조 8530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중구(53조8230억원), 영등포구(36조950억

원), 서초구(35조5700억원)가 뒤를 이었다. GRDP 규모가 가장 작은 구는 강북구(3조2836억원)였다.

자치구별 1인당 GRDP 규모는 중구(4억1748만원), 종로구(2억1870만원), 강남구(1억4136만원) 순으로 컸고, 도봉구(1044만원)가 가장 작았다.

1인당 GRDP는 주거인구가 적고 사업체 밀집도가 높은 도심 지역이 높게 나타나며, 소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의 '서울통계간행물'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hjk1@

서강대-캐리소프트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산학협력

‘캐리’ 프로젝트 연계 PIP 강의 개설

서강대학교가 콘텐츠 IP기업 캐리소프트와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12일 총장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심종혁 총장, 김순기 대외부총장과 박창신 캐리소프트 대표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대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메타버스, AR·VR·MR·XR 등 신기술 기반 콘텐츠의 공동 기획 및 개발 ▲메타버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 메타버스 테크놀로지 교육 및 기술 교류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은 ‘캐리’의 프로젝트와 연계한 PIP 강의를 개설하고 ‘캐리’ 임직원이 참여



서강대 심종혁 총장(왼쪽), 캐리소프트 박창신 대표(오른쪽)가 양 기관 업무협약 체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강대

하는 마이크로 디그리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또한 실시간 렌더링 게임엔진을 활용한 CG기술 등 메타버스 테크놀로지 공동개발에 참여해 NTF-블록체인 기술 응용사업 및 정부지원사업 등 기술기반 지원사업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X자형 횡단보도 확대 설치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각선(X자)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작년 용산구 이태원역, 중구 신세계백화점 앞, 관내 초등학교 인근 지역을 포함 14곳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시는 단절된 보행 경로에 횡단보도를 추가로 만들어 보행 편의를 증진시켰다. 압구정역 교차로, 서강대 교남단 등 14개소에는 ‘L’ 또는 ‘C’자 형태의 횡단보도를 ‘X’자 형태로 바꿔 모든 방향에서 길을 건널 수 있게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해 구로디지털 1단지 교차로를 포함 보행자가 많은 주요 업무지구와 생활 지구 총 31곳에 대각선 또는 일반 횡단보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중구 신세계백화점 앞에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 /서울시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성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교통 시설”이라며 “앞으로 면밀한 수요 분석과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책을 추진해 교통약자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파주시

재가 의료급여 사업 확대

하나로마트-장독대 식사지원 협약

파주시는 하나로마트 및 장독대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식사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퇴원 가능한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들이 퇴원 후 집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식사지원 업무 협약은 2022년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확대 추진의 일환으로 퇴원 환자의 편의성과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자 의료급여관리사가 협력 업체를 발굴해 추진했으며,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업체와의 서비스 연계를 통해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건국대, 17일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포럼

전용 홈페이지서 비대면 진행

건국대학교 혁신사업단이 오는 17일 ‘2021 KU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부제: 혁신으로 다가서는 미래선도대학)’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성과포럼 전용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과포럼은 대학혁신지원사업 1주기(2019년~2021년)를 마무리하며 그간의 혁신성과를 함께 공유하고자 진행하게 됐다.

성과포럼 홈페이지는 ▲포럼안내 ▲혁신우수사례 ▲홍보자료 ▲이벤트 네

가지 메뉴로 구성될 예정이다. 혁신우수사례 메뉴에서는 3개년도 종합성과와 교육혁신, 연구혁신, 산학협력혁신, 교육환경개선 등 각 분야 우수사례를 영상으로 만나 볼 수 있다. 혁신사업단의 브로슈어와 뉴스레터, 보도자료, 지난 성과포럼 영상 등은 홍보자료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홈페이지 오픈일에 맞춰 17일부터 24일까지 ‘혁신사업 OX 퀴즈 이벤트’도 진행된다. 추첨을 통해 애플워치7(1명), 에어팟 3세대(1명), 커피 기프티콘(60명)을 경품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